

씨앗은 어디에

김중혁

소설가

구영대와 신상도는 30년 동안 함께 일을 하고 있다. 일종의 프로젝트형 프리랜서들이라 불러야 할까. 각자 일을 하다가 큰 건수가 생기면 연락해서 힘을 합친다. 각자의 전문 영역이 있다. 구영대는 빈집을 귀신같이 터는 도둑이고, 신상도는 금고와 프로그램 해킹과 CCTV 전문가다. 30년 전 우연히 함께 일을 한 후에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매료됐고, 오랜 기간 우정을 쌓아가고 있다. 우정이라고 말을 해도 좋을지 모르겠다. 긴박한 상황에 직면하면 두 사람 모두 서로를 배신할 게 분명하지만, 다행히 30년 동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운이 좋았다. 배포가 작은 탓이다. 둘 다 인생 역전 한 방을 꿈꾸지 않았다. 소소하게 먹고, 적당하게 살찌고, 욕심을 내지 않으며, 위험한 곳에는 가지 않는다는 원칙대로 움직였다.

“도둑 주제에 위험한 곳에 가지 않는다는 원칙이 말이 되는 거야?”

누군가 이렇게 묻겠지만, 구영대와 신상도는 위험한 곳엔 가지 않았다. 두 사람을 돕는 또 다른 파트너 ‘알프(ALF)’ 덕분이다. ‘알프’는 범죄 계획을 입력하면 위험지수를 알려준다. 범죄 대상, 장소, 경비 상태 등을 고려해서 위험지수 5퍼센트에서 95퍼센트까지 알려준다. 현장에 함께 가면 실시간 위험지수도 알려준다.

몇 년 전에 타계한 작곡가 정민수의 악보를 훔치러 갔을 때, 알프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정민수와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던 피아니스트 류지환이 미공개 악보들을 소유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류지환은 은퇴한 후 시골에 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알프와 함께 출발했다. 휴대전화 신호도 간신히 잡히는 산골이었다.

구영대와 신상도는 작은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면서 류지환이 집을 비우기만을 기다렸다. 컵라면과 볶음김치를 먹으면서 버텼다. 사흘이 지났는데도 류지환은 외출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다. 알프가 알려주는 위험지수는 80퍼센트였다.

“알프, 80퍼센트가 맞아?”

신상도가 물었다.

“집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 집에 들어가면 폭력과 마주쳐야 합니다.”

의자 크기 정도의 알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사람이 외출하면?”

“소형 드론을 띄워서 집주인의 동선을 파악할 겁니다. 집주인이 돌아오기 전에 모든 일을 마치면 위험지수는 10퍼센트 미만일 것입니다. 집주인이 갑자기 집으로 돌아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 알프. 구입하길 잘했다.”

“감사합니다.”

“알프, 궁금한 게 있는데……. 너는 죄책감이나 윤리 의식 같은 게 장착돼 있나? 무슨 말이냐면, 범죄인을 돕는 게 괜찮냐는 뜻이야.”

“신상도 님은 죄책감이나 윤리 의식이 장착돼 있습니까?”

“나는 장착돼 있지.”

“그렇다면 신상도 님은 어째서 범죄를 저지르는지 여쭙봐도 되겠습니까?”

“나는……, 먹고 살아야 하니까. 다른 일을 하고 싶지만, 나한테 맞는 일이 없더라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소유자를 돕는 게 저의 일이니까요.”

“아이고, 로봇한테 아주 잘하는 짓이다.”

얼굴에 수건을 덮고 잠을 청하던 구영대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로봇 아니고 에이아이라고요.”

“그래 에이아이하고 수준 높은 대화 나누고 계시네. 도둑놈 돕는 거니까 너도 도둑놈이다 그러는 거 아냐.”

“위험지수가 50퍼센트로 낮아졌습니다.”

알프가 작고 단호한 목소리로 두 사람의 대화를 끊었다.

“응? 그래? 왜 50퍼센트지?”

류지환이 집 밖으로 나서고 있었다. 오토바이에 앉아 시동을 켰다. 3일 만의 외출이었다. 알프는 자신의 가슴에 들어 있던 소형 드론을 꺼내서 전원을 켰다. 류지환이 오토바이를 타고 언덕 아래로 사라졌고, 소형 드론이 그 뒤를 쫓아갔다. 구영대와 신상도는 여섯 곡의 악보를 훑칠 수 있었고, 무사히 현장을 빠져나갔다. 류지환이 가지고 있던 정민수의 악보를 도난당했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는 이미 브로커에게 물건을 넘긴 뒤였다.

“이번에는 취소해야 되는 거 아냐? 시작하기 전부터 위험지수가 너무 높아.”

구영대가 마스터키 꾸러미를 만지작거리면서 말했다.

“영대 형, 40퍼센트면 괜찮은 거야. 류지환이 살던 시골집은 들어가기도 전에 80퍼센트였잖아.”

신상도는 알프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재부팅시키는 중이었다.

“그거야 사람 사는 집이니까 그런 거고. 이번에는 사람 안 살고 컴퓨터가 보안을 담당하는 곳인데 40퍼센트면 너무 높은 거 아냐?”

“자, 재부팅 완료됐고요. 알프, 위험지수가 40퍼센트인 이유를 말해줄래?”

“위험지수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람과의 대면 가능성입니다. 이어서 보안 등급, 탈출 경로 확보 유무, 은폐와 엄폐 지역 개수 등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에덴의 씨앗’을 보관하고 있는 ‘씨앗 은행’은 인간이 상주하고 있지 않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탈출 경로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방이 숲으로 둘러싸인 곳이어서 헬기를 동원하지 않으면 즉각적인 퇴로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데를 하자고? 너 제정신이야? 퇴로 확보가 불가능하다잖아.”

구영대가 자세를 고쳐 잡고 앉았다.

“영대 형, 내가 누구야? 응? 신상도야. 신세계의 상급 도둑 신상도라고. 계획을 다 세워놨지.”

신상도가 거드름을 피며 말했다.

“그럼 뭐, 헬기라도 불렀어?”

“헬기보다 더 대단한 걸 불렀지요.”

“그게 뭔데?”

“드론.”

“드론을 타고 빠져나온다고?”

“숲이 울창해서 드론을 띄워도 레이더에 걸리지 않아. 새들이 좀 위험하긴 한데, 최신형 드론 알아봤더니 충돌 회피 기능이 몰라보게 좋아졌더라고. 그거면 충분해요.”

“우리 두 사람 무게를 감당해? 아니지, 알프 무게까지?”

“알프는 알아서 빠져나올 거야.”

“알프한테 드론으로 탈출할 거란 얘기해봤어?”

“안해봤지.”

“해봐.”

“에이, 그러다 위험지수가 갑자기 오르면 어떡해.”

“그럼 작전을 취소해야지.”

“알프가 좋은 에이아이이긴 하지만 최신 정보 업데이트 기능이 조금 부족해. 요즘 드론의 어마무시한 기능을 이해 못할 거야.”

“일단 넣어봐. 안 그러면 나 이번 일 안해.”

신상도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기존의 작전 정보에다 드론의 정보와 최신 기능을 추가했다. 알프는 곧장 결과를 출력했다.

“위험지수는 20퍼센트로 낮아졌습니다.”

“그거 봐, 형. 괜찮다니까.”

작전 당일, 구영대와 신상도는 자동차를 타고 씨앗은행으로 향했다. 숲으로 둘러싸인 곳이 었기 때문에 준비물이 전보다 많았다. 옷 역시 식물 패턴으로 골라 입었고, 땅을 팔 수 있는 야전 삽도 준비했다. 씨앗은행으로 가는 자동차 안에서 구영대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 이번 일 끝내면 은퇴할까 싶어.”

“뭘 소리야. 재능을 왜 썩혀?”

신상도는 고개를 돌려 조수석에 있는 구영대를 바라보았다. 구영대는 멍한 눈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렇게 외박하고 출장이 많은 일은 이제 힘들어. 가게 하나 차리려고.”

“무슨 가게요?”

“CCTV랑 드론 파는 가게.”

“요새 그걸 누가 가게에서 사요. 다 인터넷으로 사지.”

“물건만 파는 게 아냐. 드론 교육도 하고, CCTV 영화제도 하고 그러는 거지, 뭐.”

“영화제요?”

“재미있지 않겠냐? CCTV 영화제. 나 요새 그런 상상하면 재미있더라.”

“형, 영화 같은 거 보면요, 도둑들이나 조직폭력배 같은 사람들이 꼭 그러잖아요. ‘나 이번 일 끝나면 손 씻는다’. 그러고는 다들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손 씻어?”

“손을 어떻게 씻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음. 그랬던가? 내가 영화를 많이 안 봐서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 하지 말라고.”

“그러면 ‘에덴의 씨앗’으로 정원 사업이나 해볼까? ‘에덴의 씨앗’만 있으면 황폐한 땅을 살릴

수 있다잖아. 돈도 벌고, 환경도 되살리고 좋잖아.”

“그걸 팔아서 생긴 돈으로 편안하게 사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런가? 모르겠다, 내 인생. 아무튼 끝나고 생각하자.”

뒷자리에 앉은 알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구영대와 신상도는 씨앗은행 근처의 공터에 자동차를 세워두고 장비를 점검했다. 알프의 가슴에 달린 화면에는 실시간 위험지수가 표시되고 있었다. 19퍼센트와 20퍼센트를 번갈아가면서 보여주었다.

구영대는 씨앗은행의 지하 배수관을 잠입통로로 선택했다. 구형 자물쇠를 잠금장치로 사용하고 있었다. 구조가 복잡하고 열기 까다로운 자물쇠였지만 구영대는 쉽게 분해할 수 있었다. 구영대가 앞장서고 그 뒤를 신상도가 따라갔다. 맨 뒤에서 알프가 쫓아왔다. 신상도는 가끔 고개를 돌려 위험지수를 확인했다.

“현재 위치는 씨앗은행의 보안 구역 외곽입니다. 곧 주요 보안 구역에 진입합니다. 위험지수 22퍼센트로 상승했습니다.”

알프가 보고했다.

“알프, 이거 잠금 해제하려면 몇 분 걸릴 거 같아?”

신상도가 물었다.

“잠금 해제 예상 시간은 42초입니다. 현재, 외부 신호 감지됩니다. 변수 발생. 순찰 드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알프가 대답했다.

“드론? 여기 드론이 있다고?”

“1분 후에 드론과 마주칩니다. 위험지수 45퍼센트로 상승했습니다.”

“방해 신호 발사할 수 있어?”

“가능합니다. 30초 동안 드론의 통신이 차단됩니다.”

알프가 문을 열었고, 구영대가 에덴의 씨앗을 챙겼다. 신상도는 휴대전화로 드론을 대기시켰다. 1분 만에 모든 작전이 완료됐다.

“형, 우리가 해냈어요.”

신상도가 드론에 올라타면서 소리를 질렀다.

“휴, 고생했다.”

구영대가 드론에 기대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드론이 날아올랐다. 드론에는 스무 개의 작은 프로펠러가 돌아가고 있었고, 아래쪽에 구영

대와 신상도가 등을 맞대고 앉아 있었다. ‘호버 바이크’에다 놀이 시설인 ‘자이로드롭’ 의자를 갖다 붙인 모습이다. 바람을 막아주는 몸체가 없어서 속력을 낼수록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두 사람은 대화를 하기 위해 목청껏 소리를 질러야 했다.

“형, 아까 깜짝 놀랐지?”

신상도는 등 뒤에 있는 구영대에게 말하기 위해 고개를 돌리고 소리를 질렀다.

“알프는 잘 오고 있어?”

구영대도 등 뒤에 있는 신상도에게 소리를 질렀다.

“뭐라고?”

“알프도, 잘, 오고 있냐고.”

신상도는 알프의 위치를 검색했다. 씨앗은행에서 멀리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드론의 방향을 쫓아오고 있었다.

“잘 오고 있는 것 같아.”

“그래, 알았어.”

구영대는 아래를 내려보았다. 뾰뾰한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었다. 위에서 내려다보니 아래의 삶을 상상하기 힘들었다. 수많은 생명체가 나무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겠지만 보이는 건 많지 않았다. 드론이 고도를 낮추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였다. 나무 꼭대기에 걸리지 않을 정도의 높이로 아슬아슬하게 날아다녔다. 나무가 파도 같았고, 서핑 보드를 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구영대는 멀미가 날 것 같았다.

구영대는 주머니에 들어 있던 에덴의 씨앗 상자를 꺼냈다. 보석 상자 정도의 크기였다. 열었더니, 아주 작은 씨앗 하나가 들어 있었다. ‘이게 에덴의 씨앗이라고?’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작았다. 구영대는 작전을 시작하기 전에 늘 공부를 했다. 악보를 훑치기 전에는 작곡가의 음악을 들었고, 보석을 훑칠 때는 보석의 역사를 공부했다. 이번에는 씨앗을 공부했다. 신상도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씨앗을 심어보기도 했다. 희귀 씨앗을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바오밥나무와 몰로키아 씨앗을 구입했다. 시키는 대로 했지만 싹을 보지 못했다.

씨앗의 중심부에는 ‘배아(Embryo)’가 들어 있는데, ‘미니어처 생명체’라고 부른다. 이미 그 속에 줄기, 뿌리, 잎 등이 모두 갖춰져 있다. 그걸 씨앗에서 끄집어내 키우면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았다. 발아하기 전의 씨앗은 휴면 상태로 지내고 있다. 에너지를 거의 소비하지 않으면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몇 년을 버틸 수도 있고, 수천 년을 버틸 수도 있다. 구영대는 그 시간들을 상상하기 힘들었다. 구영대는 에덴의 씨앗을 손으로 만져보았다.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생명이 잠자고 있는지 알 길이 없었다.

드론이 덜컥거리면서 크게 흔들렸다. 작은 드론들이 쫓아오고 있었다. 씨앗은행에서 쫓아온 드론인 것 같았다.

“형, 속력을 좀 내야겠어.”

신상도의 말이 끝나기 전에 드론이 급발진했다. 작은 드론은 쫓아오지 못했다.

구영대의 손에 있던 씨앗이 사라졌다. 씨앗을 붙잡고 있던 손가락 모양은 그대로인데, 그 안에 있던 씨앗은 보이지 않았다. 구영대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숲이 빠르게 흘러갔다.

“상도야.”

구영대가 소리를 질렀다.

“왜 그래, 형?”

신상도가 대답했다.

“씨앗을, 떨어뜨린 것 같아.”

구영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뭐라고? 잘 안 들려.”

신상도가 소리를 질렀다.

“씨앗을, 잃어, 버렸다고.”

“뭐? 씨앗?”

“그래. 씨앗.”

“그게 무슨 말이야?”

“흔들려서, 떨어졌어.”

“왜 이제 말해. 어딘데? 드론 돌릴게.”

“저기서 어떻게 찾아.”

“그래도 가야지. 알프가 찾아낼 거야.”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모르겠어.”

“와, 미치겠네.”

두 사람이 머뭇거리는데 사이 드론은 계속 날아갔고, 씨앗으로부터 점점 멀어졌다. 구영대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나무와 나무와 나무와 나무와 또 나무와 나무들, 그 아래에 있을 여러 발 달린 곤충과 곤충을 먹어 치우는 동물들과 동물의 배설물과 하늘로 날아오르려는 새들과 새를 쫓아가는 날카로운 발 톱 달린 동물과 이끼와 버섯과 진흙과 풀들과 그 아래에 있을 씨앗들이 빠르게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끝>

생리대

정보라

소설가

“기본소득 때문에 이혼했다”고 나윤의 아버지는 말하고 다닌다. 혹은 그렇다고 한다.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지 벌써 몇 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나윤이 아버지가 이혼의 과정이나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직접 들은 적은 없다. 전해 들은 얘기에 의하면 그렇다. 나윤이 알고 있는 진실은 다르다. 어머니가 이혼을 결심한 이유는 생리대 때문이었다.

우리 집이 좀 이상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은 청소년 시기에 누구나 한 번쯤 해 보게 마련이다. 나윤이 이런 의구심을 품게 된 것은 중학교에 진학한 뒤였다. 나윤은 그때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다. 동네에 새로 문을 연 헬스장을 홍보하는 전단지를 나눠주는 일이었다. 일당을 받아서 나윤은 립글로스와 생리대를 샀다. 자기 돈을 가져본 것도, 생리대를 구입해 본 것도 모두 처음이었다.

나윤은 기뻐다. 이제 수업이 끝날 때 아이들의 눈치를 보며 학교 화장실의 비상 생리대를 몇 개씩 몰래 뽑아두지 않아도 된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월경을 시작한 이래 나윤은 집에 가는 시간부터 다음날 다시 학교에 오는 시간까지 계산해서 학교 화장실 비상 생리대를 뽑아 비축해 두었다. 아이들이 뒤에서 ‘생리대 도둑’이라고 수군거리는 걸 나윤도 알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학교 생리대를 뽑아다 모아서 파는 거 아니냐고 나윤에게 따지는 아이와 싸웠던 적도 있었다. 비상 생리대 자판기가 비어 있거나 화장실에 사람이 너무 많을 때는 양호실에 가서 보건 선생님에게 손을 벌리기도 했다. 학교에 있는 생리대는 크기가 정해져 있어서 양이 많은 날이나 밤에 잘 때 사용하는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았다. 보건 선생님한테 부탁하면 가끔 오버나이트를 얻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매달 그렇게 얻어 쓸 수는 없는 노릇

이었다.

“엄마가 안 사 주시니? 엄마한테 말씀드려.”

보건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다. 동급생과 싸웠을 때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나윤도 물론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다. 아버지는 생리 정도는 참을 줄 알아야 한다며 나윤에게 생리대를 사주는 것도, 생리대 살 돈을 주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어머니가 직접 바느질을 해서 면 생리대를 만들어 주었다. 면 생리대는 속옷과 겹돌아서 움직이기 불편하고 자주 썩고 아무리 빨아도 핏자국이 잘 지워지지 않았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일어났을 때 의자에 선명하게 핏자국이 묻어 있었다. 핏자국을 나윤도 보았고, 나윤의 옆자리와 뒷자리, 이어서 앞자리에 있던 아이들도 보았다. 그 뒤로 나윤은 어머니가 만들어준 면 생리대를 집 밖에서 사용하지 않았다.

나윤이 처음 자기 힘으로 돈을 벌어 립글로스와 생리대를 구입한 다음 날 아버지가 나윤의 방에 들어와 가방을 뒤집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가방 속에 들어 있는 일회용 대형 생리대와 립글로스를 꺼내 방바닥에 늘어놓았다. 아버지는 때리지 않았다. 폭력은 야만의 발현이라고 아버지는 언제나 말했다. ‘대화’를 하자며 아버지는 나윤에게 립글로스 앞 방바닥에 앉으라고 했다. 그리고 아버지는 사치와 향락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이며 어린 시절부터 사치에 물든 사람이 자라면 어떤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지 오랫동안 설명했다. 몇 시간이나 설명한 끝에 아버지는 나윤에게 직접 립글로스와 생리대를 휴지통에 버리라고 명령했다.

나윤이 다시 헬스장에 찾아가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부탁했을 때 관장님은 곤란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가 다녀갔다고 했다.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를 고용할 수는 없다고 관장님은 미안해하며 나윤을 내보냈다.

립글로스는 없어도 상관없었다. 생리대는 필요했다. 생리는 참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더운 날에 땀이 쏟아지는 걸 참을 수 없듯이, 월경혈이 쏟아져 나오는 것도 참을 수 없었다. 참을 수 없으니까 ‘생리’현상이었다.

“우리 집은 왜 생리대 살 돈도 없어?”

나윤은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사춘기 딸에게 생리대를 사줄 수 없을 만큼 집이 가난하지 않다는 사실은 나윤도 알고 있었다. 밥을 굶거나 집에 전기나 수도가 끊어진 적은 없었다. 나윤은 평범한 집에서 살았고 다른 아이들처럼 노트북이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다. 남들이 다 하듯이 학원에 다녔고, 계절에 맞는 옷과 신발을 갖추어 입고 신었다.

다만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신발을 신는지에 대해 나윤은 발언권이 없었다. 어머니는 전업 주

부였고 아버지에게 생활비를 받아서 세 식구가 먹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해결했다. 어머니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게부와 함께 영수증을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돈 쓴 내역을 점검받는 것은 나윤도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대화’라고 표현했지만 나윤이 보기에 그것은 취조였다. 두부 한 모, 화장실 휴지 한 롤을 구입한 것까지 어머니는 일일이 그 필요성을 아버지에게 설명하고 자신의 지출을 정당화하고 방어해야 했다. 가끔 그 ‘대화’는 한밤중까지 이어졌다.

나윤의 동급생 중에는 부모가 모두 직장에 다니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나윤은 아버지가 혼자 돈을 벌어도 저렇게 가게부 계산이 복잡한데 부모가 모두 돈을 버는 집은 ‘대화’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 지레 끔찍하게 여겼다. 다른 집 부모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영수증까지 따져가며 가게부를 점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윤은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어른이 혼자서 돈을 버는 집이라도 나윤의 아버지처럼 여자아이가 생리대를 사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는 없었다. 집안의 어른이 아이에게 용돈을 주고, 그 용돈으로 아이가 무엇을 사는지 영수증을 요구하며 하나하나 따지지 않는다는 것, 아이가 자기 돈을 스스로 관리할 재량과 자유를 준다는 것, 그게 보통이라는 것 - 나윤에게는 이 모든 발견이 충격이었다.

더 큰 충격은 나윤의 어머니가 이혼을 결심했다는 사실이었다. 결심만 한 게 아니라 변호사를 찾아갔다고, 이제까지 썼던 17년치 가게부를 보여주고 한밤중까지 이어졌던 대화를 녹음한 것을 들려주었다고 어머니는 나윤에게 조용히 말했다. ‘경제적 학대’가 가정폭력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어머니도 처음 알았다고 했다. 때리거나 물건을 부수는 것만이 학대는 아니었다. 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민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 배우자에게 돈을 주지 않는 것, 배우자의 돈 씹씹이를 계속 비난하는 것, 일일이 허가를 받고 돈을 받아 가게 하는 것, 자신이 얼마나 버는지, 얼마나 쓰는지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는 것, 이 모든 행위가 경제적 학대였다.

“돈이 들어왔어.”

어머니가 나윤에게 말했다.

“큰돈은 아니지만, 나라에서 주는 돈이야. 기본소득이래.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준대. 이걸 네 아빠도 건드릴 수 없어. 네 아빠하고 이혼하고 이 집을 나가도 굶지 않고 살 수 있어.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버틸 수가 있어.”

그리고 어머니는 나윤을 바라보며 물었다.

“나갈래?”

나윤은 대답 대신 우선 급한 사안부터 물었다.

“그럼 나도 열여덟 살이 되면 기본소득 받을 수 있어?”

“그럼, 받을 수 있지.”

어머니가 말했다.

나윤은 얼른 계산해 보았다. 삼 년 반 정도 버티면 나윤도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그 때까지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보태면 된다. 아버지를 떠나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삼 년 반만 버티면, 기본소득을 받게 되면 그 뒤로는 어머니가 나윤까지 먹여살리는 부담을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

“아버지한테는 기본소득 들어온 거 얘기 안 했어. 그렇지만 아버지도 알 거야.”

어머니가 속삭이듯 덧붙였다.

“아버지하고 계속 살면 너도 기본소득이 들어와도 아버지한테 뺏길 수도 있어.”

그리고 어머니는 어머니가 어렸을 때, 코로나19가 팬데믹이 되어 세상을 휩쓸었을 때 재난 지원금이 ‘세대주’에게 전부 지급되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지원 단위가 가족이었기 때문에 가족 전체의 지원금이 세대주에게 지급되었고 그래서 외할머니는 어머니나 삼촌에게 한 마디도 하지 않고 그 돈을 혼자서 다 써버렸다고 했다.

“어디다 썼는데?”

나윤이 놀라서 물었다.

어머니는 한참 뒤에 대답했다.

“썬글라스를 샀어.”

나윤은 말했다.

“나 엄마 따라 갈래.”

그것은 당연한 결론이었다.

두 사람은 떠났다.

어머니가 몇 달 동안 모아둔 기본소득은 방을 구해서 월세와 보증금을 내자 거의 사라졌다. 어머니가 그 다음 달 기본소득과 첫 월급을 받을 때까지 두 사람은 몇 주 동안 베개도 이불도 없는 얇은 매트리스 위에서 패딩점퍼를 이불 삼아 덮고 잠을 자야 했다.

어머니는 첫 월급을 받은 날 나윤을 자신이 일하는 마트로 불러서 이불과 베개를 골라보라고 했다. 나윤은 처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침구를 선택했다. 어머니는 직원 할인가로 나윤이 좋아하는 식재료를 샀다. 사는 김에 프라이팬과 뒤집개도 샀다. 그때까지 두 사람은 냄비 하나로 한 달째 버티고 있었다.

“전기밥솥을 살까?”

어머니가 물었다.

“비싸지 않아?”

나윤이 걱정했다.

“크기에 따라 다르지. 집에 가서 검색해 보자.”

어머니가 말했다. 나윤은 동의했다.

어머니는 즐거워 보였다. 나윤도 행복했다.

어머니와 둘이 사는 삶은 가난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나윤도 어머니와 함께 떠날 때부터 짐작하고 있었다. 나윤은 여전히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었다. 나윤의 친권을 아직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지려면 법정에서 한참 다투야 했고 그 변론을 맡은 변호사의 수임료는 분할해서 앞으로 갚아 나가야 했다.

그러나 매트리스 위에서 어머니와 둘이 패딩점퍼를 나눠 덮고 자도 나윤은 지금이 좋았다. 조그만 예산 안에서 어머니와 서로 무엇을 먹고 싶은지 의논해서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 수 있었다. 어머니가 주는 용돈으로 필요한 크기의 생리대를 사고 푼돈이 남으면 싸구려 립밤을 사서 어머니에게 선물도 할 수 있었다. 어머니는 장을 보고 나면 영수증을 전부 갈기갈기 찢어서 마트 쓰레기통에 버렸다.

삼년 반만 더 버티면 나윤도 자신의 기본소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조금 더 큰 방을 구하고 전기밥솥도 살 수 있을지 모른다. 그 전에 어머니가 나윤의 친권을 가져올 수 있으면 나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자기 용돈이나마 스스로 벌 수 있게 될지도 몰랐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자유이고 존엄이었다. 자기 돈을 가진다는 것은 인생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는 의미였다.

아버지는 여전히 기본소득 때문에 자신이 이혼했다고, 기본소득은 사람을 게으르고 무책임하게 만든다고, 지인들에게 하소연하고 다닌다고 했다. 기본소득 때문에 어머니가 마약과 도박에 빠지고 나윤은 사치에 물들었다는 거짓말도 하고 다니는 모양이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사치에 물들 만큼 큰돈이 하늘에서 거저 떨어지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전자렌지도 살 수 있는데, 하고 나윤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버지도 기본소득을 받고 있으니 사치나 도박에 사용할 만큼 큰돈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은 아버지 본인도 알 것이었다. 애초에 기본소득이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가 받는 기본소득을 아버지가 굳이 빼앗지 않은 것 같다고 어머니는 말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왜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지 나윤은 알 수 없었다. 사실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았다.

나윤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엄마 돈 받았대!

어머니가 보낸 문자메시지였다.

- 뭐 먹고 싶어, 우리 딸?

나윤은 어머니가 뭘 좋아하는지 궁리하며 메시지에 답장을 보내기 시작했다. <끝>

2024,10,31일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1238-8(하제마을) 팽나무 아래에서

강형철

시인

2020년, 생장추 수령 537(±50)으로 측정된 팽나무가
국가자연유산 신규지정으로 천연기념물로 선포되던 날
팽나무 아래에는 국가유산청 높은 사람과 군산시장을 비롯
이른바 관계자들이 행사를 벌였다
이른바 높은 사람들이 축사를 하며 자랑스러워했고
'흙소리 타악공화국'의 공연이 이어지며
하제마을에 살던 사람들의 회고가 이어진 뒤,
행사는 끝났다
서둘러 기념식장이 비워졌다

2020년 10월부터 매월 세 번째 토요일에
팽팽문화제를 마흔 여섯 번 열었던 '평화바람' 식구들은
몇 명의 하객으로 간단히 처리되었고
한 마디 말도 할 수 없었다
팽나무만 천연기념물 위용으로
담담하게 미군부대 탄약고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때 지팡이를 짚고 선 문정현 신부님의 목소리가
팽나무 아래 공터에서 울렸다

뭐라고? 644가구 2천 여 주민들이 살기위해 떠났다고?
그 주민들이 쫓겨나간게 아니고 제 발로 떠났다고?

살던 집 부서지고 가재도구 아직도 곳곳에 파묻혀 있고
그 울음소리 원망의 소리 여전히 쟁쟁한데...
마을에 살다가 미군에게 총맞아 죽은 아버지를 그리는
70 노인이 자신의 텃자리가 여기라고 울며 울부짖고 있는데
뭐라고! 살기 위해 떠났다고...
그게 말이야!
살기 위해 떠났더니! 쫓겨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죽게 생겼으니 쫓겨난거지!
그게 말이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똥구멍에서 뒷목으로 철사줄이 올라왔어
나는 말을 못했어 꿈쩍도 못했다고!

분노가 쳐올라와 몸뎡이가 딱 굳어 아무말 못 했다고!

순간, 하교길에 장갑차에 깔려 죽은 동두천의 효순이 미순이가
아니 1945년 미군이 이 땅에 진주한 이후 저지른 수 많은 범죄들이
아니 계속되는 전폭기 이착륙 소리에 귀가 울려 살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 이곳 옆의 수라갯벌은 물론 이른바 새만금 사업으로 죽어가고 썩어가는
뭇 생명들이 팽나무 주변으로 몰려오면서
갑자기 세상이 더더욱 캄캄해졌다
전기불이 들어오면서 세상이 캄캄해졌다는 말을 전해주고
몇 해 전 홀연히 떠난 김종철* 선생님이 공터로 돌아오고 있었다

건물 5층 높이인 20m, 가슴 둘레 7.5m
밑둥 3m 높이에서 남북으로 넓고 균형있게
가지가 퍼져 수형이 아름다우며 생육상태가 양호하다는
천연기념물 580호 하제마을 팽나무는
아무 말 없었다

지금은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인 주소가
SOFA협정에 의해 U.S.A 캘리포니아 사서함 몇 호로
뒤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아니 팽나무가 선 땅 몇 오름 제외하고
주변을 모두 다 미군에게 공여되어
미국의 주소지로 바뀌어 딴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제야 간신히 오늘의 현실이 어디인지
우리들이 알기 시작했다고 격려해주는 것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랬다!

아무말 없이
굳게 서서

당당하게 천 개의 손을 흔들며
'600년 팽나무'는 일어서고 있었다

• **김종철(1947~2020)**: 문학평론가. 1991년 『녹색평론』을 창간했고, 『기본소득』을 중심과제로 제창하였다.

고통이 말해주지 않는 고통

이문재

시인

고통이 말해주지 않는 고통이 있다
나무가 다 보여주지 않는 나무가 있듯이
내게도 당신에게 말할 수 없는 당신이 있다
상처가 다 말하지 않는 상처가
그래서 상처를 아물게 하는 것인지 모른다
꽃이 다 보여주지 않는 꽃 어딘가에
그 꽃의 꽃다움이 있을지도 모른다
당신에게 다 보여주지 못하는 내가 있듯이
이별에게도 이별하지 못하는 이별이 분명 있겠다
만남에게도 만나지 못하는 만남이 분명 있겠다